

낙농인에게 희망을 주는 협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2003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느끼는 심정이지만 2003년 새해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질게 깔려있는 먹구름이 가시고 밝은 미래가 열리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더구나 금년은 서민과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리라 굳게 다짐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기에 이러한 바램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지난해, 60년 낙농사에 최초로 원유생산을 감산해야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했던 그 고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결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낙농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자동화시설과 규모화 사양기술의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즈음 원유의 감산이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상황에서 우리 낙농인들은 고통과 시름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가 원유의 수급불균형에서 온 것이라면 정부, 업계 그리고 낙농가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빨리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오늘의 이 위기를 우리가 넘어야 할 힘든 산이라면 우리도 고통을 감내하고 넘어야 할 것이다.

협회는 낙농생산자의 유일한



조 흥 원 / 서울우유 조합장

“

새해에는 확고하게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재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정부 정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낙농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잉여원유차등가격제보다 훨씬 낫은 낙농생산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안 제시와 제도개선 정착에 힘써야 되겠다.

”

전국 조직이다. 일부 낙농가의 외면속에서도 전국낙농인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힘겹고도 외로운 대정부 활동을 하여왔다. 지난 수 십년 동안 다른 축종의 어느 조직보다 발군의 활동과 성과로 그 성과를 드높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원유수급불균형에 따른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를 전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낙농가의 불만을 결집해 전달하는 역할은 소홀함이 없었으나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낫은 정책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일선 낙농조합장으로서 협회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새해에는 확고하게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재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정부 정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낙농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잉여원유차등가격제보다 훨씬 낫은 낙농생산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안제시와 제도개선 정착에 힘써야 되겠다. 새해에는 전국의 모든 낙농가가 동참하는 자조금제도를 정착시키고 타 유관기관과의 자조금 사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남이 없어야겠다.

협회가 낙농인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단체로 거듭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

(필자연락처 : 02-490-8001)